나실인의 주도(酒道)와 주님의 도

(민6:1~2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실인의 주도(酒道)와 주님의 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실인의 주도(酒道)와 주님의 도'

주도(酒道)는 술자리에서 갖는 몸가짐에 대한 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주님의 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술을 마시거나 술자리에서의 도리가 있겠습니까? 술자리에서의 도리를 줄여서 말하면 결국 술에 대한 태도이고 그것이 주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꼭 술을 어떻게 마실 것이냐를 정하는 것만이 주도가 아니라, 아예 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술에 대한 태도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주도라고 말해봅니다. 나실인이 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마음가짐을 주도로 표현할 때에, 일반인들이 지키는 주도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를 비교해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나 성현들의 주도(酒道)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각종 관혼상제(冠婚喪祭) 때마다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런 저런 음식이 빠지는 것은 손님들이 이해를 하지만, 술이 빠지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술을 말할 때에 '백미지장'이라고 하는데 '백가지 맛 중에 으뜸'이라는 뜻으로 '신이 인간에게 준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신 등을 좋아하지 않는 유림(儒林)에서도 유독 음식 중에서 술에만 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만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도의 첫걸음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백미지장입니다. 먹어야 될 백가지 음식 중에 으뜸인 음식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 세상사는 것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말하는 십자가 생활화도 '주님이 백미지장'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도 소의 죽음을 먹고 양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므로 으뜸인 음식입니다. 유림에서 백미지장이라고 술에 절하는 것만은 허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만 절을 합니다. 백가지 음식 중에 으뜸이 되시는 십자가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 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주의 도인데 일반인이 따르는 주도와 주님의 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도에 따르면 술을 마신 정도를 가늠하면서 마시므로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술에 취해서 추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마신 정도를 가늠하려고 술잔의 횟수를 정합니다. 주도에 따르면 세 잔, 다섯 잔, 일곱 잔째의 기분을 측정합니다. 세 잔째에는 훈훈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잔을 마셨는데 슬프거나 우울하면 술을 중단합니다. 다섯 잔째에는 기분이 좋아서 더 마실 수 있는 상태이고, 일곱 잔째에는 매우 즐거워야 합니다. 이 일곱 잔을 넘어서면 가능한 조절하는데 술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조심해서 내가 술로 인해 적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잔을 넘었을 때 평소에 가졌던 불만이 폭발한다든지, 대작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괘씸죄가 억눌려 있다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단계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미주의처럼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미주의는 기쁨이 우상시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과 기쁨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께서 생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쁨은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기쁨을 선택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봐주시는 포인트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酒道)와 주님의 도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도에서는 움직이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추태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방에서 시작한 술자리가 석 잔, 다섯 잔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상태에서 정원으로 옮겨서 술을 마시게 되고, 정원에서도 기분 좋은 상태가 확인 되면 더 즐거운 자리를 위해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 가까운 계곡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요즘 술을 마실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데, 주도에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될수록 개방된 공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미지장이신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기도가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다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흐뭇해지고 만족해지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개방적인 단계로 들어서서 이웃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주도(酒道)와 주의 도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느냐면 ‘포도 열매나 심지어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연결 될 수 있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주검에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실인은 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약을 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 기간을 평생으로 약속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것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을 앞서 나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규정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내 몸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롬12: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몸을 여호와께 드리고 싶어서 지키는 나실인의 규정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문자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실인이 뜻하는 바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을 예언적이고 원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앞으로 받아들여서 백미지장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며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선민들에게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고, 주검에 손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롬12: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실인이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예를 들어 점심때 순댓국밥집을 갔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술이 좀 당기는데'라고 하며 순댓국을 드시면서 소주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긴다.'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한잔 했으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당긴다.'는 마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 당기는 것들이 생기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생긴 죄악의 체질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당깁니다. 소주 한잔 마시고 싶은 것처럼 돈을 쥐었으면 좋겠고 이 당김에서부터 취함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이 당김을 깨는 것이고 취함에서 깨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을 원형적으로 재현하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당김에서부터 문제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탄의 말을 듣고서 세상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구별하며 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무언가를 들여놓게 되면 반드시 그 인격전체가 술 취한 것처럼 그 기운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실인이 되면 제일먼저 나타나는 일은 취함이 사라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변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취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돈 하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힘을 다해 돈을 벌고, 멀쩡한 정신으로 일류대학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멀쩡한 정신으로 승진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지만 이것이 다 취한 것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분명히 멀쩡한 정신으로 승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술 취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민 전체에게 나실인의 규정을 통해 참다운 선민의 원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꿈과 비전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내가 계획을 세우면 제정신이 아니고 취한 것입니다. 명분을 들이대고 덧대는 것이지 속마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을 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술 취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화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한 잔 입에 안대며 살아가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그것을 계시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술에 취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언행(言行)은 술주정이고 주사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백미지장인 주님의 죽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먹지 않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술주정꾼이고 주사로 일관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몸을 내 소원과 계획을 따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나의 의지를 따라 몸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면 발이 움직여야 하고, 음식을 먹거나 손으로 무엇을 만지려면 손이 움직여야 하므로 몸의 기운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몸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중간에서 빠지지 않고 오직 머리 위로 분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느라 입으로 기운이 빠지고, 손으로 빠지고, 배를 채우느라 빠지고, 발로 빠지지 않고 모든 기운을 집중해서 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술주정뱅이처럼 휘청거리면서 불필요한 곳에 모든 힘을 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검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진 것인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끊어진 모든 일은 다 술 취해서 시체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좌우앞뒤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백미지장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한 모두가 다 시체더미 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실인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율법을 줘도 복음이 주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기간 동안 행해야 될 나실인 규정을 십자가 복음이 주어질 때에 이루어질 온전한 선민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그려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먹는 일을 그치는 그 순간에 세상적인 주도(酒道)에 따라 삶을 살게 되는데 술에 대한 태도만이 주도가 아니라, 술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도 주도입니다. 이 술이 타락 후의 내 마음이 당기는 모든 것입니다. 돈도 술이고 자식도 술이고 승진도 술이고 결혼도 술이고 일류대학도 술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으로 당겨서 마시면 그 기운으로 움직여 가는 모든 행동이 주사이고 술주정입니다. 이 세상 것이 술이 당기듯이 당기고, 당긴 것을 마음에 담으면 취해버리고 맙니다. 돈 돈하고, 자식 자식하고, 일류대학 일류대학하고, 명품 명품하고, 승진 승진하고 모든 게 다 술주정이 돼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것이 당기지 않은 상태가 돼야 하는데 백미지장이신 주님을 먹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주의 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든 기운이 머리 위로 분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의 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천국으로 배부른 자에게만 사탄의 꾐인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극복되고 이 세상 것이 당기지 않게 되는데 이 세상 것이 당기지 않아야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진 못했다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주사를 부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승진이 당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술주정이고, 이 세상 일 때문에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술주정인데 이 세상 것들을 당겨서 마음에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똑똑한 정신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어도 마음에 자식을 담고 있으면 취한 것이고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두고 주사를 부리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주도는 술을 끊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이라는 술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조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주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고 마음에서 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목회라는 술에 대한 태도는 목회를 마음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부흥이 당기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목사님의 몸을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세상 것이 당기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당겨지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 내 몸을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쳐질 수가 없고 나실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아버지를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다 가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는 겁니다. 나는 아직 마음에 불만도 많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라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은 백미지장인 주님뿐이고, 주님을 먹어야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더 이상 당길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술이 당기듯이 당기는 이 세상의 당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아야 내 몸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당신의 관심사와 당신의 뜻을 향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술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나실인의 주도입니다. 세상 모든 술에 대한 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김과 취함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술주정의 삶, 주사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이제는 백미지장이신 주님의 죽으심만을 매순간 먹음으로 하늘로 배불러, 이 세상일은 온전히 바쳐진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